

전남 영암군 출토 포류의 봉제구성법에 관한 一例*

- 나주임씨와 제주양씨 분묘 출토 포류를 중심으로 -

안명숙**

【국문초록】

본 출토복식은 나주 임씨 임연(1587~1654)과 제주양씨(1589~1687)의 것으로 전남 영암군 시종면에서 발견되어 2012년 5월 21, 22일 이틀에 걸쳐 수습이 되었다. 출토 포류 중에는 수의로 입은 것도 있고 보공용으로 일상시 입었던 포들도 있다. 제주 양씨는 나주 임씨 임연의 재실이다.

옷의 구성은 홑옷, 겹옷, 솜옷, 솜누비옷 등 다양하였으며, 나주 임씨와 제주 양씨의 포류에 사용된 바느질은 옷의 구성에 상관없이 홑질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꼼꼼하게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인 깃, 무 등에는 온박음질을 사용하였다. 두 출토복식의 바느질법에 특별한 차이는 없었다.

부위별 바느질을 정리해 보면 깃 바느질은 주로 온박음질이 사용되었고, 셔츠 홑질이 주로 사용되었다. 숄기방향은 걸쭉, 안셔 모두 길쭉으로 된 것이 많았고, 등술은 홑질로 바느질되었고, 입어서 오른쪽으로 숄기 처리를 한 것이 많으나 등술이 골로 된 것도 있었다. 도련의 단처리는 걸감과 안감을 단없이 바로 연결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도련의 바느질은 대부분 홑질로 하였다. 무는 삼각무와 함께 힘을 많이 받는 곳이므로 고운 홑질과 온박음질로 하였다. 고름은 숄기 방향이 위로 향한 것과 아래로 향한 것이 혼용하여 달린 것이 대부분이고, 긴고름과 짧은 고름이 반대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누비는 고운 누비가 아니고 바늘땀이 위로 드러나기보다 안으로 바늘땀이 긴 누빔바느질로 하여 누빔도 예쁘지 않았으며 누비 간격도 컸다. 다른 분묘들의 누비 바느질보다 정교하지 않았다.

<주제어> 나주 임씨, 제주 양씨, 포, 바느질, 홑질, 온박음질

* 이 연구는 2015년도 광주대학교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

** 광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 목차 -

1. 서론
2. 출토경위 및 염습상태
3. 나주 임씨 출토포류의 봉제구성법
4. 제주 양씨 출토포류의 봉제구성법
5. 나주 임씨, 제주 양씨 출토 출토 포류의 바느질 특징
6. 17세기 출토 포류와의 비교를 통한 바느질 분석
7. 결론

1. 서론

본 출토복식은 나주 임씨 임연(林堧, 1587~1654)과 제주양씨(1589~1687)의 것으로 전남 영암군 시종면에서 발견되어 2012년 5월 21, 22일 이틀에 걸쳐 수습이 되었다.

나주 임씨는 원조(遠祖)인 임비(林庇)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지고 임비는 고려시대 충렬왕을 원나라까지 호종했던 공으로 보좌이등공신(輔佐二等功臣)에 책록되었고, 뒤에 상장군(上將軍)과 충청도도지휘사(忠淸道都指揮使), 판사재시사(判司宰侍事)에 올랐던 인물이다. 임비의 18대가 임연이며 그는 임익의 셋째 아들인 황의 외아들이다. 임연의 첫 번째 부인은 언양김씨로 그의 아버지는 상건(上乾)이고 조부가 조선 중기 문인으로 임진왜란 대 의병을 일으켰던 김천일이다. 제주양씨는 재실로 부 인용(仁容), 조부 산립(山立), 증 조부 응기(應箕), 외조부 풍산 홍진(洪纘)이다.¹⁾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 중기 17세기 출토 포류를 통해 이 당시 홉옷, 겹옷, 솜옷, 솜누비옷의 종류에 따른 바느질법과 부위별 바느질, 시접방향 및 솔기 처리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부위별 특징을 정리해 보고 밑단과 옆단의 단처리 방법과 상침부위 및 상침기법 등의 특색있는 바느질법을 분석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나주임씨 임연의 포류로 소창의 1점, 중치막 4점, 과두 1점,

1) 광주시립민속박물관, 『나주임씨·제주양씨 회곽묘 출토유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14, 15쪽.

주의 1점, 장옷 3점, 겹단령 1점, 방령 1점 등 총 12점과 제주양씨 분묘에서 출토된 포류로 소창의 2점, 중치막 3점, 장옷 4점으로 총 9점이다.

나주 임씨와 제주 양씨의 출토 포류의 구성적 특징과 형태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²⁾된 바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봉제법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출토유물은 광주 시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그동안 출토되었던 많은 광주, 전남지역의 출토복식들³⁾과 함께 더 많은 복식연구에 기여를 할 것이다.

2. 출토경위 및 염습상태

나주 임씨 연의 염습의(殮襲衣)를 보면 대렴금(大斂衾)을 묶은 5묶음의 염포가 보였다. 5묶음의 횡포와 하나로 묶여진 종포를 풀었더니 대렴금이 보인다. 대렴금(시신을 가장 밖에서 싸는 이불)은 흑색길에 깃, 동정 등 3폭으로 구성된 상태가 양호한 염습 이불이었다. 대렴의는 소매가 거의 없는 방령이 염포로 묶여져 있는 소렴금 윗부분을 감싸고 있었고 발 아래쪽 끝에서는 누비저고리가 덮여져 있었다. 이러한 염습의 사례는 2009년 곡성군 석곡면에서 출토된 장흥마씨 분묘⁴⁾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대렴의 수습 후에는 10묶음의 횡포로 염습된 소렴금(시신을 싸는 이불)을 발견하였다. 소렴금(小斂衾)을 묶은 염포는 10묶음이지만 5가닥의 천을 각각 묶는 부분을 반으로 갈라 묶은 것이다, 홑이불의 소렴금을 묶고 있는 횡포를 풀자 접혀져 있는 얇은 한지로 된 목서가 놓여져 있었다. 종포를 풀고 서서히 소렴금을 벗겨 내자 위에서는 중치막이, 아래쪽에서는 장옷이 거의 온전한 상태로 수습되었다. 그 중 특이한 점은 나주 임씨 머리쪽에서 뒤집혀진

-
- 2) 광주시립민속박물관, 『400년 전 우리옷 이야기』, 광주민속박물관, 2013.
안명숙, 「나주 임씨 연(1587~1654) 출토복식의 형태적 특징과 바느질법」, 『남도민속연구』 27집, 남도민속학회, 2013.
안명숙, 「전남 나주 출토 제주양씨(1589~1687) 출토복식의 형태적 특징과 바느질법」, 『남도민속연구』 29집, 남도민속학회, 2014.
- 3) 안명숙, 「조선시대 중기 출토복식 중 포류에 관한 연구」, 『남도민속연구』 24집, 남도민속학회, 2012.
- 4) 안명숙, 「전남 곡성군 장흥마씨 출토여복에 관한 연구」, 남도민속학회, 2010, 113쪽.

채로 모습을 드러낸 솜누비장옷이었다. 이 장옷은 형태나 크기 등으로 보아 여자 옷인 듯하나 수의로 착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옷을 보공의(補空衣, 시신이 관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안을 메워주는 옷)로 넣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 다음 보공의로 된 저고리 등이 머리가 있는 윗부분에서 출토되었다.⁵⁾



나주 임씨 출토유물 수습 상황

제주 양씨 염습상태는 머리 밑에서 반혀진 모습으로 소모자가 수습되었고, 족두리는 머리에 씌워져 있었다. 수의로 입혀진 복식 중 먼저 보인 것은 허리끈을 묶은 중치막인데 온전한 상태로 있었다. 수의로 입혀진 상태를 살펴보면 상의 수의로 포 3, 저고리 2, 적삼1 순으로 입혀졌다. 하의로 입혀진 수의는 명주누비바지를 비롯하여 속바지, 치마까지 총 3점이다. 가장 안에 입혀진 솜바지는 손상도가 심했다.

3. 나주 임씨 출토 포류의 봉제구성법

나주 임씨 출토 포류의 종류는 소창의, 중치막, 과두, 장옷, 단령, 방령으로 출토 수량에 비해서는 다양한 포류가 출토되었다. 포의 구성은 홑옷은 없었

5) 광주광역시시립민속박물관, 앞의 책, 18쪽.

고 겹옷과 솜옷, 솜누비옷이다. 소재는 무명으로 된 옷이 2점이고, 문단이 1점 있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명주로 만들어졌다.

나주 임씨 출토 포류 중 누비옷이 많았으며 소색명주겹누비중치막이 1.5cm 크기의 누비로 가장 좁았으며 대부분 솜을 두고 누빈 포들은 3~19cm로 누비 간격이 컸다. 이 시기보다 이르거나 비슷한 시기도 누비가 고운 것이 많았으나⁶⁾ 본 출토 포류에는 누비 간격도 컸고 누비 간격이 크다 보니 누빔바느질도 곱지 않고 밖으로 드러난 누비땀보다 안으로 들어가서 뜨는 바늘땀이 훨씬 큰 누빔바느질을 하였다. 보통 누비가 고운 것은 고운 흠질이나 온박음질 같은 바느질인데 본 출토 포의 누빔은 흠질이나 시침한 것처럼 간격이 큰 것도 보인다. 0.2cm 밖으로 누빔 자국이 있고 안쪽으로 0.5~1cm 누빔 자국이 있어 밖에서 보았을 때 1cm 안에 누빔이 하나 정도 있을 정도로 성근 누빔도 있었다.

〈표 1〉 나주 임씨 출토 포류

유물분류	유물명	재료	구성
소창의	갈색명주솜누비소창의	명주	솜누비
중치막	갈색명주솜누비중치막1	명주	솜누비
	소색명주겹누비중치막	명주	겹누비
	갈색명주솜누비중치막2	명주	솜누비
	갈색명주솜누비중치막3	명주	솜누비
주의	갈색명주겹주의	명주	겹
과두	소색무명솜과두	무명	솜
장옷	갈색명주솜누비장옷1	명주	솜누비
	갈색명주솜누비장옷2	명주	솜누비
	갈색무명솜누비장옷	무명	솜누비
단령	갈색명주겹단령	명주	겹
방령	연갈색문단겹방령	문단	겹

6) 안명숙·조효순, 「전남 영암 출토 최원립장군 출토복식에 대한 고찰」, 『한복문화』 4권 4호, 한복문화학회, 2001, 18쪽(출토 포류보다 늦은 시기의 최원립장군(1618~1690) 중치막과 소창의의 누빔 간격도 1.1~1.3cm 정도로 고운 누빔 포류 많음).



갈색명주숨누비소창의



소색명주겹누비중치막



갈색명주숨누비중치막1



갈색명주숨누비중치막2



갈색명주숨누비중치막3



갈색명주겹주의



소색무명숨과두



갈색명주숨누비장옷1



갈색명주숨누비장옷2



갈색무명숨누비장옷



갈색명주겹단령



연갈색문단겹방령

나주 임씨 출토 포류

1) 소창의의 봉제구성법

갈색명주숨누비소창의의 주된 바느질은 흠질과 온박음질이였다. 깃, 섶, 무는 온박음질로 되었고 도련, 배래, 트임 등은 흠질로, 동정은 시침질로 하였다. 겹감과 안감 연결은 판단없이 바로 겹감과 안감을 흠질로 연결하였다. 겹고름은 없었고 안고름의 슬기는 위쪽을 향해 달려 있다.

갈색명주솜누비소창의						
구성 및 소재		솜누비, 명주				
주된 바느질법		홈질, 온박음질				
부위		바느질법		시접방향	비고	
1	깃	겉/안	온박음질/ 공그르기		-	상침자국 만 있음
2	섶	겉/안	온박음질/홈질		길쪽/길쪽	
3	소매	겉/안	배래	홈질	뒤쪽	
			수구	홈질	길쪽	
			소매연결	홈질	길쪽	
4	등술	겉/안	홈질		오른쪽	
5	도련	홈질		-		
6	옆단	홈질		-		
7	삼각무	온박음질		무쪽/길쪽		
8	무	온박음질		길쪽		
9	트임	홈질		-		
10	고름	온박음질		겉고름없음 안고름:위로 향함		
11	동정	시침질		2cm간격		

2) 중치막의 봉제구성법

갈색명주솜누비중치막1의 바느질은 상당히 고운 온박음질과 홈질로 솜옷이나 바느질이 상당히 고왔다. 또한 누빔을 할 때 가능하면 겹섶, 안섶선, 무선, 깃선 등의 연결부위가 있는 곳을 활용해 누비 간격을 잡아서 누웠다. 처음엔 누비선이라 생각 못하고 겹섶선, 안섶선, 무선, 깃선 등에 일부러 상침바느질을 한 지 알았다. 안깃 머리는 0.5cm 떨어져서 홈질로 상침되어 있었다.

고름은 홈질로 바느질되었고 겉고름, 안고름 현대와는 달리 바느질한 솔기가 아래로 향해 달려 있다. 이 시기는 출토유물들의 고름 시접방향이 일정하지 않아 현대와 같이 겉고름, 안고름 솔기가 위로 향해 있지 않고 아래로 향

하거나 겹고름과 안고름이 달리 된 것도 있는데, 이는 17세기 다른 출토유물들⁷⁾에서도 보이는 양상이다.

겉감과 안감 연결은 판단없이 바로 흠질로 연결하였다.

갈색명주솜누비중치막²는 갈색명주솜누비중치막¹과 마찬가지로 등솔, 쇠배래, 깃 등에 이음 부분을 활용하여 누빔을 누볐다. 밑단, 옆단, 무 모두 두땀상침을 하였다. 가장자리에서 5cm 떨어진 곳에서 0.5cm 안에 두땀상침을 하고, 4cm 간격마다 두땀을 하였다. 소매끝은 1cm 떨어진 곳을 흠질로 상침하였다. 특이한 것으로 무와 길이 한판으로 연결되어 마름질하여 무의 이음 솔기가 없는 것이 특징적이다. 겉감과 안감은 판단없이 바로 연결하였다.

종류		갈색명주솜누비중치막 ¹			갈색명주솜누비중치막 ²				
구성 및 소재		솜누비, 명주			솜누비, 명주				
주된 바느질법		온박음질, 흠질			흠질, 온박음질				
부위		바느질법		시접방향	바느질법		시접방향		
1	깃	겉/안	온박음질/고운흠질	-	겉/안	온박음질, 흠질(안깃)	-		
2	쇐	겉/안	온박음질/흠질	길쪽/길쪽	겉/안	온박음질/흠질	길쪽/길쪽		
3	소매	겉/안	배래	흠질	뒤쪽	겉/안	배래	온박음질	뒤쪽
			수구	흠질	길쪽		수구	흠질	
			소매연결	흠질	길쪽		소매연결	온박음질	길쪽
4	등솔	겉/안	흠질	오른쪽	겉/안	온박음질	오른쪽		
5	도련		흠질	-		흠질	-		
6	옆단		흠질	-		흠질	-		
7	무		온박음질	길쪽		무형태로 만들어 길과 함께 연결해 차단	없음		
8	트임		흠질	-		흠질	-		
9	고름		흠질	아래로 향함		흠질	아래로 향함		
10	동정		시침질, 2cm 간격	-		시침질	-		

7) 이은주, 『17세기 동래 정씨 흥곡공과 일가 묘의 출토복식』, 『복식』 53권 4호, 한국복식학회, 2003, 79쪽.

소색명주겹누비중치막도 흠질과 온박음질이 주로 사용되었고, 흠질은 너무 고와서 온박음질 같이 보였다.

겉감과 안감 연결은 띠단을 사용하여 연결하였다. 띠단은 공그르기로 하였다.

소색명주겹누비중치막						
구성 및 소재		겹, 명주				
주된 바느질법		흠질, 온박음질				
부위		바느질법		시접방향	비고	
1	깃	겉/안	온박음질/흠질		-	
2	섞	겉/안	온박음질/온박음질		길쪽/길쪽	
3	소매	겉/안	배래	흠질	뒤쪽	
			수구	흠질	길쪽	
			소매연결	흠질	길쪽	
4	등술	겉/안	흠질/흠질		입어서 왼쪽	
5	도련	공그르기			-	띠단
6	옆단	공그르기			-	띠단
7	무	흠질			길쪽	
8	트임	흠질			-	
9	고름	흠질			아래로 향함	
10	등정	시침질			-	

갈색명주솜누비중치막3의 전체적인 바느질은 흠질이나 상당히 정교하였다.

겉감은 등술을 23cm 폭 두 개를 연결하여 붙였으나 안감은 46cm 옷감 한편으로 하였다. 수구는 띠단없이 1cm 흠질로 겉에서 상침하였고 0.3cm 간격으로 0.1cm 땀으로 흠질하였다. 겉깃머리는 0.1cm 떨어져서 0.1cm 간격으로 상침하였고, 안깃은 1cm 떨어진 곳에 0.1cm 땀으로 0.3cm 간격으로 흠질하였다. 겉감과 안감은 띠단없이 연결하였다.

갈색명주솜누비중치막3						
구성 및 소재		솜누비, 명주				
주된 바느질법		홉질				
부위		바느질법		시점방향	비고	
1	깃	겉/안	홉질/홉질		-	상침
2	섶	겉/안	홉질/홉질		길쪽/길쪽	
3	소매	겉/안	배래	홉질	길쪽	
			수구	홉질		
			소매연결	홉질	길쪽	
4	등솔	겉/안	고운홉질		오른쪽	0.2
5	도련	홉질		-		
6	옆단	홉질		-	0.3~0.4	
7	삼각무	홉질		무쪽		
8	무	홉질		길쪽		
9	트임	홉질		-		
10	고름	홉질		양쪽 모두 아래로 향함		
11	동정	시침, 2cm 간격		-		

3) 주의의 봉제구성법

갈색무명겉주의의 전체적인 바느질은 홉질로 아주 고왔으며 정교하였다. 겉감보다 안감은 약간 거친 홉질로 바느질하였다. 안감은 부족해서 인지 몇 곳을 연결하여 옷감을 이었다. 겉깃머리는 0.1cm의 고운 온박음질로 상침하였다. 겉감과 안감 연결은 판단없이 바로 연결하였다.

갈색무명겉주의					
구성 및 소재		겉, 무명			
주된 바느질법		고운흡질, 온박음질			
부위		바느질법		시접방향	비고
1	깃	겉/안	온박음질/공그르기		-
2	섶	겉/안	온박음질/흡질		길쪽/길쪽
3	소매	겉/안	배래		뒤쪽
			수구		길쪽
			소매연결		길쪽
4	등솔	겉/안	흡질/흡질		오른쪽
6	도련	흡질		-	
7	옆단	흡질		-	
8	삼각무	흡질		길쪽	
9	무	흡질		길쪽	
10	고름	흡질		위로 향함	
11	동정	시침질, 2cm 간격		-	

4) 과두의 봉제구성법

소색무명솜과두는 솜옷이나 주로 고운 흡질을 사용하였다. 깃머리 부분은 상침하였는데 깃 가장자리는 1cm 떨어져서 흡질로 상침하였고, 깃머리 부분은 0.1cm 정도의 고운 온박음질로 상침하였다. 소매 수구부분도 1cm 떨어져서 고운 흡질로 상침하였다. 겉감과 안감 연결은 판단없이 바로 연결하였다.

소색무명솜과두						
구성 및 소재		솜, 무명				
주된 바느질법		흡질, 온박음질				
부위		바느질법		시접방향	비고	
1	깃	겉/안	흡질/흡질		-	
2	섶	겉/안	흡질/흡질		길쪽/길쪽	
3	소매	겉/안	배래	흡질	뒤쪽	
			수구	흡질	길쪽	
			소매연결	흡질	길쪽	
4	등술	겉/안	흡질		오른쪽	
5	도련	흡질		-		
6	옆단	흡질		-		
7	삼각무	흡질		길쪽		
8	무	온박음질		길쪽		
9	고름	흡질		아래로 향함		
10	동정	시침질, 2cm 간격		-		

5) 장옷의 봉제구성법

장옷은 3점 모두 솜누비로 만들어졌으며, 태수형 소매형태의 특징을 나타낸다.

갈색명주솜누비장옷1은 겉감은 대부분 온박음질로 바느질하였고, 안감은 흡질로 하였다. 배래와 깃은 흡질로 눌러서 가장자리를 박아 주었다. 겉감과 안감 연결은 판단없이 바로 연결하였다.

겉섶과 안섶 부분에는 안단이라기보다는 겉감을 대서 안감과 연결하였다. 도련과 옆선에 두땀 상침하였는데 가장자리에서 5cm 떨어져서 5cm 마다 두땀 상침하였다.

갈색명주솜누비장옷2의 전체적인 바느질은 솜누비옷이나 고운흡질로 바느질되었고, 누빔바느질도 곱다.

겉감과 안감을 연결할 때 밑단은 단처리하여 0.5cm 홉질로 하였고, 옆단은 단없이 안감과 겉감을 바로 연결하였다. 소매는 태수형으로 안쪽에 명주 옷감을 대어 접었을 때 명주가 밖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겉깃과 안깃머리는 0.1cm의 고운 온박음질로 깃머리부분만 상침하였다. 동정은 자국만 있고 떨어져서 남아 있지 않다.

종류		갈색명주숨누비장옷1				갈색명주숨누비장옷2			
구성 및 소재		숨누비, 명주				숨누비, 명주			
주된 바느질법		온박음질, 홉질				홉질			
부위		바느질법		시접방향	비고	바느질법		시접방향	비고
1	깃	겉/안	온박음질/홉질		-	겉/안	온박음질/홉질		-
2	셔	겉/안	온박음질/온박음질		길쪽/길쪽	겉/안	홉질/홉질		길쪽/길쪽
3	소매	겉/안	배래	홉질	뒤쪽	겉/안	배래	홉질	뒤쪽
			수구	홉질	길쪽		수구	홉질	길쪽
			소매연결	홉질	길쪽		소매연결	홉질	길쪽
4	등술	겉/안	온박음질/홉질		오른쪽	겉/안	홉질		오른쪽
6	도련	홉질			-	홉질			-
7	옆단				-				-
8	삼각무	온박음질			길쪽	온박음질			길쪽
9	무	온박음질				홉질			길쪽
10	고름	홉질			아래로 향함	홉질			위로 향함
11	상침	깃머리만			-	겉깃, 안깃 깃머리만			-
12	동정	3cm 간격 시침질			-	시침, 2cm			-

갈색무명숨누비장옷은 겉감과 안감 연결은 1~1.5cm 너비의 띠단을 대었다. 단은 공그르기 하였다. 소매는 태수형으로 밖으로 나오는 부분은 명주로,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무명을 연결하여 만들었다. 깃은 1cm 떨어져서 숨 고정 상침을 고운홉질로 하였고, 겉깃과 안깃 깃머리는 고운 온박음질로 상침하였다.

갈색무명솜누비장옷						
구성 및 소재		솜누비, 무명				
주된 바느질법		흡질				
부위		바느질법		시접방향	비고	
1	깃	겉/안	온박음질/흡질		-	
2	섶	겉/안	흡질/흡질		길쪽/길쪽	뒀단
3	소매	겉/안	배래	흡질	뒤쪽	
			수구	흡질	길쪽	
			소매연결	흡질	길쪽	
4	등술	겉/안	흡질/흡질		오른쪽	
6	도련	흡질		-	뒀단	
7	옆단			-		
8	삼각무	온박음질		길쪽		
9	무	흡질		길쪽		
10	고름	흡질		위로 향함		
11	상침	겉깃, 안깃 깃머리		-		
12	동정	시침질, 2cm 간격		-		

7) 단령의 봉제구성법

갈색명주겹단령은 겉감의 홑단령과 안감의 홑직령을 연결하여 만든 것으로, 현재는 무에서만 연결되었고 소매, 배래 등도 모두 따로 되어 있다.

단령과 직령을 겉감과 안감으로 보면 겹웃이나 보통의 겹웃 바느질처럼 단령과 직령이 하나로 연결되어 겉감과 안감으로 바느질 된 것이 아니라, 홑단령과 홑직령으로 무에서 연결되었고 바느질도 조약하며 안감의 직령 시접이 겹으로 다 드러나 있다.

단령 겉깃은 여러 곳에서 이어진 자국이 있다, 단령의 깃은 온박음질로 곱게 하였고 둥근 깃 부분은 탱탱하게 심을 넣어서 온박음으로 곱게 상침하였다.

안감인 안에 입은 직령은 모든 솔기가 가진세로 되었고 섶부분은 솔기가 있으나 안단을 대어 뒀단처리하였다. 바느질은 거친 흡질로 바느질되었다.

겉깃은 흙질로 안깃은 공그르기로 되었다.

직령의 무와 단령의 무는 한쪽으로 만들어졌으며 옷감의 폭이 달라 직령의 무가 약간 더 크다. 무의 위는 뾰족한 형태이다.

갈색명주겹단령(겉감: 단령)						
구성 및 소재		겉, 명주				
주된 바느질법		흙질				
부위		바느질법		시접방향	비고	
1	깃	겉/안	온박음질		-	
2	섶	겉/안	흙질		겉섶은 판단, 안섶은 제물단	
3	소매	겉/안	배래	흙질	뒤쪽	제물단
			수구	흙질	길쪽	
			소매연결	흙질	길쪽	
4	등술	겉/안	흙질		오른쪽	
6	도련	공그르기		제물단, 옆은 가진세		
7	옆단					-
9	무	흙질		길쪽	가진세	
10	고름	흙질		긴고름: 위, 짧은고름: 아래		

갈색명주겹단령(안감: 직령)						
구성 및 소재		겉, 명주				
주된 바느질법		흙질				
부위		바느질법		시접방향	비고	
1	깃	겉/안	흙질/공그르기		-	
2	섶	겉/안	흙질		겉섶은 가진세, 안섶은 푸서	
3	소매	겉/안	배래	뒤쪽		제물단
			수구	제물단		
			소매연결	길쪽		
4	등술	겉/안	흙질		오른쪽	
6	도련	공그르기		제물단, 옆선 가진세		
7	옆단	흙질				-
8	무	흙질		길쪽	가진세	



단령 안 바느질과 단처리

8) 방령의 봉제구성법

방령은 외형도 이름답고 상태도 양호하다. 전체적인 바느질은 고운 흠질이 주로 사용되었다.

겉감과 안감을 바로 연결하였다. 방령의 깃은 이중깃이고, 깃의 외형선을 따라 0.1cm 간격으로 고운 상침하였다. 겉감과 안감은 바로 연결하였다.

연갈색문단겹방령						
구성 및 소재		겹, 문단				
주된 바느질법		흠질				
부위		바느질법		시침방향	비고	
1	깃	겉/안	온박흠질		-	
2	소매	겉/안	배래	-	뒤쪽	
			수구	흠질	길쪽	
3	등술	겉/안	고운흠질		왼쪽	
4	도련	흠질		-		
5	옆단	흠질		-		
6	상침	깃머리 고운상침		-		
7	등정	1cm 간격 시침질		-		



방령 깃 은박음질과 쌍미리단추

4. 제주 양씨 출토 포류의 봉제구성법

제주 양씨 출토 포류의 종류는 소창의, 중치막, 장옷 3종류의 포류가 출토되었다. 포의 구성은 홑옷, 겹옷과 솜옷, 솜누비옷이 모두 있었다. 소재는 명주로 만들어진 옷이 대부분이고 문주가 한 점 있었다. 누빔옷이 많았으며 누비간격은 커서 4~12cm 사이였다.

제주 양씨 출토 포류

유물 포류	유물명	재료	구성
소창의	갈색명주솜누비소창의1	명주	솜누비
	갈색명주솜누비소창의2	명주	솜누비
중치막	갈색명주홑중치막	명주	홑
	갈색명주솜누비중치막	명주	솜누비
	갈색명주솜누비중치막	명주	솜누비
장옷	연갈색문주겹장옷	문주	겹
	갈색명주솜장옷	명주	솜
	소색명주솜누비장옷	명주	솜누비
	청색명주솜누비장옷	명주	솜누바



갈색명주숨누비소창의1



갈색명주숨누비소창의2



갈색명주홀중치막



갈색명주숨누비중치막



갈색명주숨중치막



연갈색문주접장옷



갈색명주숨장옷



소색명주숨누비장옷



청색명주숨누비장옷

제주 양씨 출토 포류

1) 소창의

두 점의 소창의는 등술을 중심으로 좌우가 반파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반파는 일부러 매장시 자른 것으로 다른 부분의 상태는 양호하였다.

갈색명주숨누비소창의1은 등술을 기준으로 반파되었으나 술기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조각을 맞춰보니 등술 술기가 없이 골로 마름질된 것으로 보인다. 누빔옷으로 누빔을 할 때 섯선 부분과 누빔선이 일치되다 보니 얼핏보아 섯선에 상침이 되었던 것으로 보였다. 자세히 보니 일부러 상침을 한 것이 아니라 섯선과 누빔선이 일치되었던 것이다.

무와 삼각무가 있는 경우, 삼각무는 크기가 작는데 비해 무게가 많이 전달되는 부위이므로 튼튼한 온박음질로 바느질되었다.

갈색명주솜누비소창의2도 특이한 바느질없이 대부분 흡질로 바느질되었고 부분적으로 온박음질이 사용되었다. 겹감과 안감은 단없이 바로 연결하였다.

종류		갈색명주솜누비소창의1				갈색명주솜누비소창의2				
구성 및 소재		솜누비, 명주				솜누비, 명주				
주된 바느질법		흡질				흡질, 온박음질				
부위		바느질법		솔기방향	비고	바느질법		솔기방향	비고	
1	깃	겉/안	온박음질/흡질	-		겉/안	온박음질/흡질	-		
2	셔	겉/안	고운흡질/흡질	길쪽		겉/안	온박음질/흡질	길쪽/길쪽		
3	소매	겉/안	배래	흡질	뒤쪽	겉/안	배래	흡질	뒤쪽	
			수구				수구	흡질상침	-	
			소매연결	흡질	길쪽		소매연결	흡질	길쪽	
4	등솔	겉/안	-	-		겉/안	흡질	오른쪽		
5	도련	공그르기		-	만단	흡질		-		
6	옆단			-				-		
7	삼각무	온박음질		길쪽		온박음질		길쪽		
8	무	흡질		길쪽		흡질		길쪽		
9	트입			-		흡질				
10	고름	흡질		긴고름 없음 짧은고름 아래로 향함		흡질		긴고름: 위로 짧은고름: 아래로 향함		
11	동정	시침질, 2cm		-		고운 흡질		-	고대에서 뒤집음	

2) 중치막

갈색명주흡중치막은 흡옷으로 시접은 1cm, 1.5cm, 2cm 정도를 솔기처리 없이 푸서 그대로 두었다. 도련단은 제물단으로 접어서 단처리는 공그르기 하였다. 옆단은 제물단 2cm로 하여 성글게 감침질하였다.

동정은 흙질로 촘촘히 박았는데, 깃 선에서 뒤집어 깃고대 부분에서 창구멍을 박고 그 위에 동정을 달았다. 다른 포류들의 동정이 시침질인 것과는 다르다.

훤웃이므로 등바대를 대었고 앞뒤로 55cm 1폭을 그대로 사용하여 옆은 식서 그대로 트이게 두고 단은 접어서 공그르기 하였다.

갈색명주흙중치막						
구성 및 소재		흙, 명주				
주된 바느질법		흙질,				
부위		바느질법		시침방향	비고	
1	깃	겉/안	흙질/감침질		-	
2	섶	겉/안	흙질/흙질		겉섶: 판단 안섶: 제물단	
3	소매	겉/안	배래	흙질	뒤쪽	제물단
			수구	공그르기	겉쪽	
			소매연결	흙질	겉쪽	
4	등술	겉/안	흙질		왼쪽	
6	도련	공그르기		-	제물단	
7	옆단	감침질		-	제물단	
9	무	흙질		겉쪽	제물단	
10	트임			-		
11	고름	흙질		아래쪽		
12	동정	흙질		-		

갈색명주숨누비중치막은 대부분의 포 깃에 상침이 있는 것과는 달리, 깃 부위에 상침이 없다. 소매 연결부위는 흙질로 누웠는데, 다른 포류의 누빔 바느질과 마찬가지로 누빔선과 일치된 것이지 일부러 누빈 것은 아니다. 누빔 간격에 따라 이은부분과 일치하는 곳은 따로 바느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었다.

겉감과 안감 연결은 판단처리하여 도련단, 옆단은 판단으로, 안섶 옆선만

식서를 그대로 두고 밑단은 뚫단처리 하였다. 겹섶도 뚫단처리하고, 뚫단은 흠질로 하였다.

갈색명주숨누비중치막					
구성 및 소재		숨누비, 명주			
주된 바느질법		흠질, 온박음질			
부위		바느질법		시집방향	비고
1	깃	겉/안	온박음질/흠질		
2	섶	겉/안	흠질/흠질		길쪽/길쪽
3	소매	겉/안	배래	흠질	뒤쪽
			수구	고운흠질	길쪽
			소매연결	흠질	길쪽
4	등솔	겉/안	흠질		왼쪽
5	도련	흠질		-	뚫단
6	옆단	흠질		-	뚫단
7	삼각무	온박음질		길쪽	
8	무	흠질		길쪽	
9	트임	흠질		-	뚫단
10	고름	흠질		아래로 향함	
11	등정	시침질, 2cm 간격		-	

갈색명주숨중치막의 도련은 겹감과 안감이 바로 연결되었다. 특별한 바느질없이 거의 흠질로 되었고, 겹감은 안감보다 약간 고운 흠질로 되었다. 소매 끝은 1cm 뚫고, 숨이 밀리지 않게 흠질로 고정하였다.

갈색명주숨중치막						
구성 및 소재		숨, 명주				
주된 바느질법		흡질				
부위		바느질법		시접방향	비고	
1	깃	겉/안	흡질/흡질		-	
2	쉴	겉/안	흡질/흡질		길쪽/길쪽	
3	소매	겉/안	배래	흡질	뒤쪽	
			수구	흡질	길쪽	
			소매연결	흡질	길쪽	
4	등솔	겉/안	흡질		오른쪽	
5	도련	흡질		-		
6	무	흡질		길쪽		
7	트임	흡질		-		
8	고름	흡질		아래로 향함		
9	동정	시침질		-		

3) 장옷

연갈색문주접장옷은 대체적으로 바느질이 곱게 되었으며, 소매는 문주와 연결된 끝의 명주부분(33cm)이 가진세로 흡으로 남아 있고 시접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안감쪽이 떨어져 없어진 태수형 소매가 아닌가 한다. 현재 상태는 소매 진동쪽에서 문주 다음 마지막 부분에 명주가 가진세로 남아있다.

겉깃과 안깃머리에 모두 3뿔 상침이 고운 온박음질로 되어 있다. 0.5cm 간격으로 0.3cm 안에 3뿔 상침 즉 0.1cm 크기의 상침 뿔이 아주 곱게 있다. 겉감과 안감은 단대는 거 없이 바로 연결하였다.

갈색명주숨장옷은 옷의 상태도 좋고 바느질도 곱게 되었다. 겉깃은 0.1cm 정도의 고운 온박음질로, 안깃은 0.3cm 간격마다 흡질로 상침되었다. 겉감과 안감 연결은 판단없이 바로 연결되었다.

종류		연갈색문주겹장옷					갈색명주숨장옷			
구성 및 소재		겉, 문주					숨, 명주			
주된 바느질법		흡질					흡질			
부위		바느질법		술기방향	비고	바느질법		시접방향		
1	깃	겉/안	온박음질/흡질		-		겉/안	흡질/공그르기		
2	셔	겉/안	흡질/흡질		길쪽/길쪽		겉/안	흡질/흡질		
3	소매	겉/안	배래	흡질	뒤쪽	가진세	겉/안	배래	흡질	뒤쪽
			수구	-	-			수구	흡질	가진세
			소매연결	흡질	길쪽			소매연결	흡질	길쪽
4	등슬	겉/안	흡질		오른쪽		겉/안	흡질		
5	도련	흡질		-		흡질		-		
6	옆단	-		-		-		-		
7	삼각무	온박음질		길쪽		온박음질		길쪽, 위쪽		
8	무	흡질		길쪽		흡질		길쪽		
9	고름	흡질		아래로 향함		흡질		아래로 향함		
10	상침			-		겉깃과 안깃머리만 상침		-		
11	등정	시침질, 2cm 간격		-		시침질, 2cm		-		



갈색명주숨장옷 소매형태(태수형-펼친 모습과 접은 모습)

소색명주숨누비장옷도 특한 바느질은 없다. 겉깃과 안깃머리에 고운 온박음질로 바느질 하였다. 누비 바느질은 겉에 누빔선이 0.1~0.2cm 정도로 작게 나타나고 안쪽으로 바느질 누빔선이 크게 나타나도록 바느질하였다. 겉감에서 봤을 때 누빔이 자국으로 있지만 거의 바느질땀이 작아 겉에서는 잘 안보이는 바느질을 하였다. 이는 숨이 두꺼워 안에서 사선으로 바늘을 뽑아

누비기 때문이다⁸⁾. 이런 누빔 바느질은 솜을 두껍게 두는 경우 많이 사용하는 누빔법이다. 겉감과 안감은 바로 연결하였다.

청색명주솜누비장옷은 깃머리의 상침은 다른 옷보다 누빔 간격이 0.2cm 정도로 성근 편이었다. 역시 누빔은 겉감에 드러난 바늘땀보다 안감쪽 땀이 더 크게 보이게 바느질하였다. 겉감과 안감을 바로 연결하였다.

종류		소색명주솜누비장옷				갈색명주솜장옷					
구성 및 소재		솜누비, 명주				솜, 명주					
주된 바느질법		흠질				흠질					
부위		바느질법		시접방향	비고	바느질법		시접방향	비고		
1	깃	겉/안	온박음질/흠질		-		겉/안	온박음질/흠질		-	
2	셔	겉/안	흠질/흠질		길쪽/길쪽		겉/안	흠질/흠질		길쪽/길쪽	
3	소매	겉/안	배래	흠질	뒤쪽		겉/안	배래	흠질	뒤쪽	수구 떨어져 없음
			수구					수구	-	-	
			소매연결	흠질	길쪽			소매연결	흠질	길쪽	
4	등술	겉/안	흠질		입어서 오른쪽		겉/안	흠질		왼쪽	
5	도련	흠질		-		흠질		-			
6	옆단	흠질		-		흠질		-			
7	삼각무	온박음질		길쪽		온박음질		길쪽/위쪽			
8	무	흠질		길쪽		흠질		길쪽			
9	고름	흠질		아래로 향함		흠질		아래로			
10	상침	깃머리(겉깃, 안깃)		-		0.2cm 온박음질		-			
11	동정	시침질, 2cm간격. 깃머리부분은 촘촘히 시침		-		시침질		-			

8) 장인우, 「조선 중기 솜털릭 구성에 대하여」, 『복식』 52권 8호, 한국복식학회, 2002, 118쪽.

5. 나주 임씨, 제주 양씨 출토 포류의 바느질 특징

보통 출토복식의 바느질은 홑옷, 겹옷, 솜옷, 솜누비옷이나에 따라서 바느질 종류와 바늘땀 및 사용하는 바느질이 약간 달랐다. 구성법에 따른 바느질을 보면 대부분 홑옷과 겹옷이 솜옷이나 솜누비옷에 비해 정교하게 바느질되었다. 홑옷은 옛쌈솔⁹⁾이라는 특별한 바느질법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나주 임씨 포류와 제주 양씨 포류는 거의 비슷한 시기의 것으로 공통적으로 살펴보고, 특이한 바느질은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나주 임씨 포류의 전체적인 바느질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옷의 구성에 상관없이 대표적인 바느질법은 홑질이 사용되었고, 뽀뽀한 바느질이 필요한 경우 온박음질이 사용되었고, 단처리와 깃에 공그르기 바느질이 사용되었다.

상침은 주로 깃머리나 깃전체 또는 수구에 사용되었고, 솜옷을 고정시키기 위해 옷 전체 가장자리를 따라 두땀 상침이 된 포도 한 점 있었다.

걸, 안감을 연결하는 바느질로는 띠단을 대거나 띠단없이 바로 연결하는 2가지가 있는데 띠단을 대지 않고 바로 바로 연결하여 걸, 안감을 연결한 포류가 더 많았다. 옷의 구성과도 관계가 없었다. 띠단을 대고 걸, 안감을 연결한 옷으로는 소재접누비중치막과 갈색솜누비장옷², 갈색무명솜누비장옷 등 3점이다.

제주 양씨 출토 포류의 바느질도 주로 홑질이 많이 사용되었고 깃, 삼각무 등 뽀뽀한 바느질이 필요한 부위에 온박음질이 사용되었다. 단처리도 나주 임씨 출토 포류와 거의 비슷하다.

① 깃

겉깃은 온박음질이 가장 많았고 그 외 고운 홑질도 사용하였다. 안깃은 대부분 홑질이고 공그르거나 감침질도 사용되었다.

9) 이상은·이동아, 『성산 배씨 문중 출토복식에 관한 연구-포에 나타난 봉제구성법의 특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1권 1호, 2009, 135쪽.

② 설

겉섶은 온박음질이나 흠질이 주로 사용되었고, 안섶은 흠질이 사용되었다. 섶의 시접은 겉섶은 섶쪽, 안섶은 길쪽인데 출토 포류의 대부분이 겉섶, 안섶 구별없이 길쪽으로 시접을 많이 처리하였다. 나주 임씨의 갈색명주접단령의 겉섶만이 시접이 섶쪽으로 되었다. 그 외 나머지는 모두 시접이 길쪽으로 되어 있다.

③ 소매

소매는 배래, 수구, 소매연결 3곳의 바느질과 시접을 보는데 대부분 흠질이고, 배래 시접은 뒤쪽으로, 소매연결과 수구 시접은 길쪽으로 되었다. 수구 에숨이 밀리지 않게 상침이 된 포들도 있었다.

④ 등솔

등솔은 대부분 흠질로 되었고, 갈색명주숨누비중치막²와 갈색명주숨누비장옷¹은 등솔이 온박음질로 되었다. 숨누비옷인데 온박음질을 사용해 옷의 구성법에 따라 특정한 바느질을 사용한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 시접은 대부분 입어서 오른쪽으로 되어 있으나 왼쪽으로 시접이 된 것도 있다.

제주 양씨의 갈색명주숨누비소창의¹은 등솔을 잊지 않고 골로 마름질로 하여 바느질없이 처리되었다.

⑤ 도련

도련은 흠질이 많이 사용되었고 공그르기 처리한 것도 있다. 겹옷이나 솜옷의 경우 겹감과 안감을 연결해야 하는데, 두 출토 포류 모두 겹감과 안감을 바로 연결한 포들이 많고, 단을 대서 단처리한 경우 판단이나 제물단의 사용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사용하였다.

⑥ 무

무는 대부분 흠질로 바느질되었고 삼각무는 온박음질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삼각무가 큰 무와 길을 지탱해야 하는 작은 크기이므로 단단한 바느질

인 온박음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주 임씨의 갈색명주솜누비중치막²는 무를 따로 재단해 붙이지 않고 길과 한판으로 마름질하여 솔기없이 무 모양만 낸 상태로 바느질되어 있다.

⑦ 고름

고름은 대부분 흙질이며 긴고름과 짧은고름의 방향이 현재는 솔기부분이 둘 다 위를 향해 있는데 출토 포들에서는 위로 향하거나 아래로 향하는 것이 혼용되어 나타났는데, 오히려 아래로 향해 달린 것이 더 많았다.

⑧ 상침

상침은 깃과 깃머리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수구와 도련 등에도 있었다. 온박음질로 된 상침도 있고 두땀이나 세땀 상침도 있다. 상침도 다른 출토 포류에 비해 드리 정교하거나 많지도 않았다.

⑨ 누비

누비옷의 누비는 직각누비보다 사선누비로 되었으며, 대부분이 겉으로 나타난 누비 바늘땀은 0.2cm 정도로 작고 안으로 들어간 누비땀은 0.5~1cm 정도로 컸다. 누비를 직각으로 누비지 않고 편하게 사선으로 누빈 것을 알 수 있다. 16세기에 출토된 누비 포들¹⁰⁾에 비해 누비 간격도 4~12cm 정도로 상당히 컸으며, 누빔 바느질보다 정교하지 않았다.

⑩ 동정

동정은 대부분 2cm 정도 간격의 흙질로 시침하듯이 마무리 하였다. 제주 양씨의 갈색명주솜누비소창의²의 동정은 고운 흙질로 바느질되었는데, 이는 고대에서 뒤집어 바느질 되었으므로 시침질하지 않고 고운 흙질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10) 광주민속박물관, 『문화류씨·장흥마씨 회곽묘 출토유물』, 광주민속박물관, 2012, 78쪽.

6. 17세기 출토 분묘와의 비교를 통한 바느질 분석

이 시기 출토복식의 바느질법으로는 흠질, 반박음질, 박음질, 3땀 상침, 째솔, 곱솔, 감침질 등 다양하였다.

또한 조선 중기 출토의복에 나타난 바느질방법은 의복의 구성유형에 따라 의복종류에 관계없이 일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의복의 바느질법은 구성유형에 따라 결정되며 기능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¹¹⁾

17세기 대부분의 홑옷은 시접크기가 0.2 정도이며 곱게 바느질하기 위해 온박음질과 반박음질이 주로 사용되었고, 배래는 홑옷이므로 곱솔 혹은 통솔 처리한 것이 많았다. 겹옷은 고정을 위한 반박음질이나 흠질로 상침처리를 하였고, 시접 연결은 대부분 흠질을 사용하였다. 솜옷이나 솜누비옷은 흠질 바느질을 주로 사용하였고 2땀이나 3땀 고정상침을 깃, 도련, 수구 등에 하였다.

나주임씨, 제주양씨의 바느질 경우는 홑옷이나 겹옷은 바느질이 정교하고 솜옷이나 솜누비옷은 홑옷에 비해 바느질이 덜 정교한 것이 일반적이는데, 본 출토 포들은 겹옷, 솜옷, 솜누비옷 상관없이 바느질이 대체적으로 흠질을 사용하고, 온박음질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바느질 종류는 옷의 구성에 따라 달리 사용되었고, 시접이나 솔기 처리 등은 대부분 옷의 구성과 관계없이 비슷하게 사용되었다. 보통 등솔은 입어서 오른쪽, 겹섶은 왼쪽, 안섶은 길쪽, 어깨는 골로 솔기가 없고, 진동도 길쪽, 수구나 소매연결도 길쪽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고름솔기는 위쪽으로 향하고 있으나 아래로 향한 것도 있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고, 가꿈 겹섶, 안섶의 솔기나 고름 솔기 등이 반대로 되어 출토된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나주임씨, 제주양씨 바느질법을 살펴보면 기존에 알고 있던 바느질

11) 장인우, 『출토복식을 통해 본 17세기 봉제구성』, 『복식』 51-1, 한국복식학회, 2001, 47쪽.

의 규칙이 완전하게 지켜지지 않았음도 볼 수 있다. 일정한 약속이나 규칙보다는 완성된 다음의 착용감이나 전체적인 미적 감각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시접의 처리가 비교적 자유로웠다. 옷에 따른 겹섶, 안섶, 등술기, 고름 등 시접을 넘긴 방향도 자유로웠다. 이러한 현상은 비슷한 시기 다른 출토복식¹²⁾ 봉제법에서도 보인다.

7. 결론

전남 영암군에서 출토된 나주 입씨와 제주 양씨의 출토 포류를 통해 17세기 바느질법을 살펴보았다. 출토 포류 중에는 수의로 입은 것도 있고 보공용으로 일상시 입었던 포들도 있다.

옷의 구성은 홑옷, 겹옷, 솜옷, 솜누비옷 등 다양하였으나 솜누비옷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망자가 겨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나주 입씨와 제주 양씨의 포류에 사용된 바느질은 대부분 옷의 구성에 상관없이 홑질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꼼꼼하게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인 깃, 무 등에는 온박음질을 사용하였다. 두 출토복식의 바느질법에 특별한 차이는 없었다.

부위별 바느질을 정리해 보면 깃 바느질은 주로 온박음질이 사용되었고, 섶은 홑질이 주로 사용되었다. 술기방향은 겹섶, 안섶 모두 길쪽으로 된 것이 많았고, 등술은 홑질로 바느질되었고, 입어서 오른쪽으로 술기 처리를 한 것이 많으나 등술이 골로 된 것도 있었다. 도련의 단처리는 겹감과 안감을 단 없이 바로 연결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도련의 바느질은 홑질로 대부분 하였다. 무는 삼각무와 함께 힘을 많이 받는 곳이므로 고운 홑질과 온박음질로 하였다. 고름은 술기 방향이 위로 향한 것과 아래로 향한 것이 혼용하여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고, 긴고름과 짧은 고름도 반대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12) 충주박물관, 『이응해 장군묘 출토복식』, 충주박물관, 2004, 165쪽.

누비도 고운 누비가 아니고 바늘땀이 위로 드러나기보다 안으로 바늘땀이 긴 누빔바느질로 하여, 다른 분묘들의 누빔 바느질보다 정교하지 않았다.

나주 임씨와 제주 양씨 분묘의 17세기 출토바느질을 살펴보았으며, 대부분 흙질과 온박음질, 공그르기와 시침질 등이 사용되어 다른 출토 분묘의 바느질보다 다양하거나 정교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광주민속박물관, 『문화류씨·장흥마씨 회곽묘 출토유물』, 광주민속박물관, 2012.
- _____, 『400년전 우리웃 이야기』,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13.
- _____, 『나주임씨 제주양씨 회곽묘 출토유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14.
- 안명숙, 『전남 곡성군 장흥마씨 출토여복에 관한 연구』, 남도민속학회, 2010.
- _____, 『조선시대 중기 출토복식 중 포류에 관한 연구』, 『남도민속연구』 24집, 남도민속학회, 2012.
- _____, 『나주 임씨 연(1587~1654) 출토복식의 형태적 특징과 바느질법』, 『남도민속연구』 27집, 남도민속학회, 2013.
- _____, 『전남 나주 출토 제주양씨(1589~1687) 출토복식의 형태적 특징과 바느질법』, 『남도민속연구』 29집, 남도민속학회, 2014.
- 안명숙·조효순, 『전남 영암 출토 최원립장군 출토복식에 대한 고찰』, 『한복문화』 4권 4호, 한복문화학회, 2001.
- 이상은·이동아, 『성산 배씨 문중 출토복식에 관한 연구-포에 나타난 봉제구성법의 특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1권 1호, 2009.
- 이은주, 『17세기 동래 정씨 흥곡공파 일가 묘의 출토복식』, 『복식』 53권 4호, 한국복식학회, 2003.
- 장인우, 『출토복식을 통해 본 17세기 봉제구성』, 『복식』 51권 1호, 한국복식학회, 2001.
- _____, 『조선 중기 솜털릭 구성에 대하여』, 『복식』 52권 8호, 한국복식학회, 2002.
- 충주박물관, 『이응해 장군묘 출토복식』, 충주박물관, 2004.

Sewing Construction of Excavated Costumes from Yeongam, South Jeolla Province

– On the Basis of Naju Lim and Jeju Yang costumes –

An, myung sook*

These excavated costumes are found at Yeongam, south Jeolla province and collected from May 21 to 22, 2015. They are belong to Naju Lim and Jeju Yang. Some costumes are shrouds and some are everyday dresses. There are various types of costumes such as unlined clothes, lined clothes, padded clothes, and quilted clothes. Most of Po were made by broad-stitching. For Kit(collar) and Moo(gusset) which needs firmness, backstitch was used. There is no distinct difference between them.

Different sewing skills were used depending on the parts of costumes. Mostly backstitch was used for Kit while broad-stitching was used for Sub. Most seams were headed to the bodice. Dengsol were made by broad-stitching and most seams were headed to the right. Some Dengsol was not having cut.

Lining and upper fabric of trim was connected without hem and broad-stitching was used. Moo as well as triangle Moo which needs firmness were made by broad-stitching and backstitch. Both upturned and downturned seam were used for coat-string and long and short coat-string were exchanged in some costumes. Stitching for quilting did not come into view and quilting intervals were broad. Sticking was not elaborate compared to other costumes excavated from other grave.

* Gwangju University, Dept.of Fashion Design

<Key words> Naju Lim, Jeju Yang, Po(coat), sewing, broad-stitching,
backstitch

K C I

* 이 논문은 2015년 4월 30일에 투고되어
2015년 6월 12일에 심사 완료되고
2015년 6월 15일에 편집위원회의 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